

‘바둑 스포츠’ 시대 열린다

바둑협, 체육회에 정가맹단체 등록 추진 전국체전 정식 종목 채택 작업 급물살

아직은 동호인...대학 특기생 혜택 없어 광주 바둑협도 시체육회 가맹단체 신청

2010년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한바둑협회가 대한체육회 정가맹단체(이하 가맹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바둑도 스포츠로 인정받는 시대가 열리게 됐다.

대한체육회에 가맹단체 승인을 받게 되면 대표팀 운영과 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메달 획득에 따른 지원금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주바둑협회도 전국체전 출전 등을 위해 광주시체육회에 가맹단체 신청을 마친 상태다.

바둑협회가 가맹단체로 등록되면 전국체전 정식종목 채택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대학 체육 특기생 혜택도 늘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바둑협회는 21일 “최근 대한체육회에 정가맹단체 신청을 마쳤으며, 빠르면 5월께 체육회 이사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현재 바둑은 전국체전 정식 종목이 아닌 동호인 종목이며, 바둑협회는 대한체육회 준가맹 상태이다. 때문에 전국체전에서 입선해도 타 종목에 비해 대학 진학에 큰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제대로 된 체육회 지원도 받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서는 전주 바둑협회만이 전주체육위원회에 정가맹단체로 등록돼 있다.

한국바둑은 오랜 논란 끝에 지난해 대한체육회에 준가맹단체로 등록했고, 광주우 아시안게임을 바둑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외형적으로 바둑의 스포츠 시대가 시작했다. 일본



최근 광주바둑협회가 광주시체육회 정가맹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광주에서 열린 제88회 전국체육대회 바둑동호인 대회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도 오래전부터 바둑의 올림픽 종목 진입을 추진해 오고 있는 등 바둑의 스포츠화가 바둑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바둑의 스포츠화가 가속화되면 프로기사를 꿈꾸는 유망주들의 대학 진학과 지역·실업팀 창단 등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프로기사의 문이 좁다 보니 수많은 유망주가 바둑을 중도에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마다 9명의 프로기사를 선발하는데 한국기원 연구생들 중에서 우선 2명을 뽑는다. 누구나 참가 가능한 봄, 가을 입단대회에서 각 2명씩 모두 4명을 선발한다.

이 때문에 유망주가 하루 10시간씩 연습하고도 20세 무렵에 프로의 길을 포기, 아마추어로 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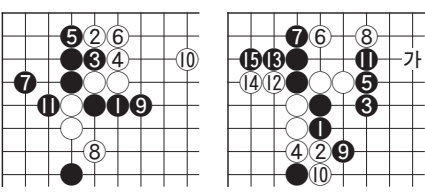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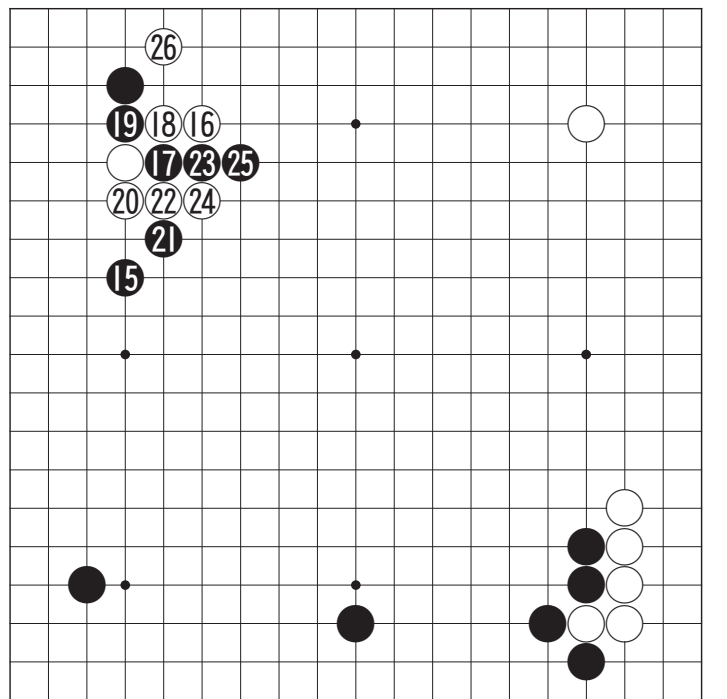
또 바둑 특기생을 뽑는 대학도 명지대학교, 대불대학교 등 극소수여서 유망주들이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바둑협회 정찬근 전무사는 “통상 준가맹 승인 후 2년 뒤 정가맹단체로 인정받지만 아시안 게임을 눈앞에 두고 있어 기간이 단축될 것”이라며 “가맹단체가 되고 체전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면, 각 시도팀과 실업팀이 창단되는 등 국내 바둑의 저변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어려운 정석

2보(15~26)
白 김지수 (문성중 2) 黑 임지성 5단 (동일전자공고 2)



김지수군이 백 16으로 날림자로 썬위간 수가 초반 정석선택의 기로였다. 이 수로는 보통 한줄 오른쪽 눈목자로 썬우거나 한칸 뛰는 수가 흔히 두어지는 수인데 김지수군은 이 정석을 연구해둔 듯 거침없이 어려운 정석을 들고 나온다. 이 정석은 이것만 가지고도 책 한권을 쓸 수 있을만큼 변화가 많고 어려운 정석이다. 임지성군은 머리가 아픈 듯 장교

를 하더니 흑 21로 급소를 두어간다. 그러나 이 수는 다음 백이 24까지 시원하게 뚫고 나와 좋은 모습이 아니다. 흑 21로는 ‘참고도1’의 흑 1로 밀고나가는 것이 제일감으로 그렇게 되면 백 2 이하를 거쳐 흑 11까지가 정석이다. 앞으로의 중앙싸움이 문제지만 서로 불만이 없는 결과다. 또 ‘참고도2’의 흑 1로 막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백 2로 찢혀나오고 흑 15까지가 정석이다. 다음 백은 ‘가’부근이 선수라 둘만하다. 실전은 26으로 뛰어 백이 편한 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한국 바둑 맞수는 누구?

한국의 대표적인 바둑 맞수는 누굴까? 지난 17일 서봉수(사진 왼쪽)-조훈현 9단이 제5기 전자랜드배 현무왕전에서 맞붙었다. 결과는 서봉수가 252수만에 8집반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조 대결이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들이 한국의 대표 맞수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3년 1월28일 백남배 본선에서 처음 만난 이들은 1980년대까지 15년 이상 라이벌 관계를 형성하며 치열하게 싸웠다.

비공식대회 포함 모두 371차례 대국해 조훈현이 248승 123패로 우위를 보였다. 상대 대결 전적으로는 역대 최다. 이어 2위는 이창호-조훈현간의 대결로 307번 만나 이창호가 186승121패로 앞서 있다. 조훈현과 서봉수가 타이틀전에서 만난 횟수도 총 70차례로 역시 역대 최다이다. 조훈현이 56차례 우승컵을 가져갔고 서봉수는 14번 이겼다.

특히 서봉수는 1984년 23기 최고위전부터 1987년 11기 기왕전까지의 타이틀전에서 무려 20차례 연속 조훈현에게 패배했지만 1987년 30기 국수전에서 이기면서 20전 21



기에 성공하는 집념을 보이기도 했다. 당시의 서봉수의 국수전 우승은 조남철, 김인, 윤기현, 하찬석, 조훈현 등 일본유학파들이 독점해왔던 국수타이틀을 비유학과 토종선수가 처음으로 차지해 바둑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서봉수는 이날의 승리로 조훈현과의 맞대결에서 최근 3연승을 거뒀다. 한편 조훈현, 이창호 사제의 타이틀전은 68회로 역대최다 2위.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서봉수-조훈현 371회 격돌 1위
조훈현-이창호 사제간 대결 2위

대만기원, 서명 거부 프로기사 13명에 5년간 국내대회 출전정지 명령

대만 랭킹 1위 기사가 5년 동안 모든 대만 기원에 출전하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대만기원은 LG배 선수권자이자 대만 바둑 1인자인 저우쥘원 9단을 비롯해 린성시엔, 평징화, 저우핑치양 등 13명의 소속기사들에 대해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대만기원이 모든 기사들에게 대만기원의 정책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이 서명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에앞서 대만기원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2012

년 12월31일까지 대만기원이 주최하는 모든 기원의 출전자격을 박탈하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총 50명의 소속기사 가운데 천스위엔 7단, 린즈한 8단, 샤오정하오 5단, 유경민 5단 등 총 37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서명을 했고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한 13명이 대회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이다.

동의를 거부하는 내용은 상당부분 포함돼 많은 프로기사들의 불만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조한승·최원용 먼저 1승

명인전, 각각 강동윤·최명훈 꺾어

조한승 9단과 최원용 5단이 제36기 하이원배 명인전 본선리그에서 1승을 신고했다. 조한승은 지난 18일 한국기원 바둑TV스튜디오에서 벌어진 이 대회에서 강동윤 7단을 154수만에 불계로 제압하고 리그 첫 승을 따냈다. 최원용도 이날 최명훈 9단을 상대로 181수 끝에 불계승을 거둬 이번 대

회 1패 뒤 첫 승을 올렸다. 이날까지 10명의 기사 모두 1국씩을 소화한 명인전 본선리그는 서열 상위권 기사들이 대체로 승리를 챙겼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우승 상금 1억원이며, 제한시간은 각 2시간 60초 초읽기 3회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과 이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과 이 마음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건강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워줍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모든노 선행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코엔자임 Q10 함유 종합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 비타민 A, C, E명 보충
- 콜레칼시페롤,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루테인, 노스킨
- 뉴클레오타이드 함유, 약용생물
- 생리, 소화, 영양, 면역, 에너지, 스트레스, 노화, 노년, 노후
- 인슐린, 비염, 폐기
- 항노화, 항암, 항염, 항산화,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진균, 항곰팡이,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진균, 항곰팡이, 항바이러스, 항세균, 항진균, 항곰팡이

